

**2025년 농진청-AFACI 워크숍
참석 및 아시아 태평양 정책 포럼
발표 · 토론 참석 출장 보고
- 필리핀 마닐라**

2025. 6

1. 출장 개요

□ 목적

- 2025년 농진청-AFACI 워크숍 참석 및 아시아 태평양 정책 포럼 발표
 - 초청 발표 (Session 2 "Affordability of Sustainable Healthy Food")
 -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참석 (AP Policy Forum General Discussion)
- 농촌진흥청은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
- 아시아 태평양 식량비료기술센터(FFTC)는 AFACI의 회원 기관으로서, AFACI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농업기술 및 정보를 공유
- 본 포럼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식품 가치 사슬 구축 및 건강한 식단 증진과 관련된 주요 도전 과제 및 기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 해결 방안을 모색
- 식품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의 순환 경제 원칙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
- 이번 년도 포럼은 식품 가치 사슬 관리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함.
 - 지속 가능한 건강 식단을 위한 곡물, 콩류, 채소 및 대체육류의 가치 사슬 강화, 유통 및 물류 효율성 증대,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지속 가능한 건강식품의 접근성 및 구매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
 - 향후 식품 정책 및 연구 방향 설정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임.

□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담당 역할	출장지	출장 기간
동향분석실	이기현 부연구위원	- 세션 발표 - 종합토론 지정 토론자	필리핀 마닐라 (라등급)	2025.06.23. ~ 2025.06.26 (총 2박 4일)

□ 주요 업무내용

- 농진청-AFACI 워크숍 참석 및 아시아 태평양 정책 포럼 세션 발표와 종합토론 지정토론 참여

○ 출장전체 일정

일자	일정
6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07:50) → 마닐라 (10:50)/KE621 • 마닐라 호텔 회의장 도착 (Seda Nuvali hotel) • FFTC 관계자 면담 및 환담 (강석용, Khun Chang Tsai)
6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참석 (08:30 ~ 18:00) • 포럼 참석자들과 오찬 및 만찬
6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참석 (08:30 시작) • 세션 발표 세션2: “Affordability of Sustainable Healthy Food” (13:30) • 토론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발표 (16:30) • 마닐라 국제공항 이동(21:30)
6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01:30) → 인천 (04:50)/KE626 • 연구원 복귀 (13:30)

2. 주요 활동

1. 워크숍참석 (2025 AFACI-FFTC Workshop “Quality Improvement of Asian Food Composition Database”)

- 아시아 식품농업협동단체와 한국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식품비료기술센터(FFTC)가 주최한 2025년 AFACI-FFTC 워크숍이 개최됨.
 - 본 워크숍은 아시아 11개국의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어 사업 결과 보고, 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
 - 올해는 식품성분표 데이터 구축 사업의 2차 연도로, 각국의 분석 결과 발표와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됨.
- 국가별 식생활 및 식생의 차이로 인해 식품성분표 데이터가 크게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각국이 국민 식생활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음.
- 한국 농촌진흥청은 이미 한국인의 식생활에 적합한 식품성분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본 워크숍을 통해 해당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음.

- 각 발표 세션과 토론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함.
 - 출장자는, 각국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전통 음식 레시피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해당 레시피에 필요한 식재료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함.
 - 이에 대해 네팔 대표단은, 고산지대에 서식하던 고대 토마토 품종을 활용한 전통요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품종이 경작되지 않아 사라졌고, 이에 따라 일반 토마토의 영양성분을 참고했다고 답변함.
 - 전반적으로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전통 요리가 사라지는 경향에 대한 어려움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섭취해오던 영양소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됨.
-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영양소 구성의 변화는 개발도상국 사례에서도 확인됨.

[그림 1] 첫째날 워크숍 세션 참석 사진



2. 포럼 발표활동 (2025 DOST-PCAARRD-AFACI-FFRC Policy Forum “Enhancing Sustainable Food Value Chains and Healthy Diets”)

□ 지속가능한 식품 밸류체인 강화 및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됨

- 본 포럼에서는 9개국의 관련 정책 사례 소개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Agrifood Vouchers: A National-Level Food Assistance Program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 이슈 및 시사점을 발표함.
-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저소득층 식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반적인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타 주요 발표 내용

- 대만에서는 식품 표시 정책 및 학교 급식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세분화된 식품 표시 정책을 통해 유기농·친환경 재배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제공하며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이 소개됨.
- “World Vegetable Program”의 디렉터인 Dr. Srinivasan의 발표도 있었음.
 - 콩류 작물(Legume family)의 교차재배(crop rotation)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함.
 - 발표자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콩류 교차재배를 통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함.
 - 이에 대해 출장자는, 한국처럼 기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 질문함.
 - Dr. Srinivasan은 기후환경에 관계없이 Legume 작물의 교차재배는 가능하다고 답변함.
 - 특히 녹두(mung bean)를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녹두는 콩으로도, 숙주 형태로도 소비가 가능해 소비 유연성과 수익성이 높은 작물임을 강조함.
 - 인도는 녹두의 최대 수입국이며, 자국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후 세션 2: “Affordability of Sustainable Healthy Food” 발표 내용

- 발표 제목: Agrifood Voucher: National Food Assistance Program in South Korea

- 세션 중 한국 농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방안,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효과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답변함.

[그림 1] 둘째날 포럼 세션 2 발표 사진



3. 포럼 종합토론 지정패널 활동

- 세션 종료 후 종합토론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함
 - 지정토론자로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이 참석함:
 - Dr. Sudathip Sae-tan (Kasetsart University, Thailand)
 - Dr. Syahrin Bin Suhaimee (MARDI, Malaysia)
 - Dr. Handewi Purwati Saliem (BRIN, Indonesia)
 - 토론 좌장은 Dr. Ramasamy Srinivasan (World Vegetable Center)이 맡음.
- 좌장은 본 토론자에게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칼로리 보충 외에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이에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함: 식품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부족한 영양소와 섭취량을 보완하는 것에 있음. 식품 선택이나 식생활 개선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식습관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강조. 따라서, 식생활 교육, 선택 가능한 품목의 제한 등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좌장은 모든 토론자에게 정책 당국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한 제언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함.
 - 이에 본 토론자는, 식품 소비 및 선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 지원과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병

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그림 3] 둘째날 포럼 종합토론 사진(맨 우측)

